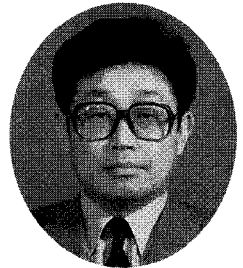


# 식생활의 이단아 '이탈리아와 몽골'

온도·강수량 등 기후조건이 쌀·육식문화 형성  
식생활 패턴·습관의 차이가 인류역사 바꿔

■ 장재우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쌀은 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의 주식이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빵과 고기를 먹는다. 그래서 식생활의 차이를 가지고 동양과 서양을 구분짓기도 한다. 이와같이 동서양 간에 식생활의 차이를 가져온 것은 한마디로 풍토의 차이다. 쌀은 밀에 비해 재배조건이 까다롭다. 기온이 높아야 하고 강우량이 풍부해야 한다. 그래서 쌀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은 전세계적으로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아시아 일부 지역에 국한된다. 그러나 유럽에서도 쌀농사를 짓는 곳이 있다. 이탈리아다. 반면에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쌀농사를 짓는데 반해 쌀농사를 전혀 짓지 않고 가축을 길러 육식을 하는 나라가 있다. 몽골이다. 그러면 이들 두나라는 어떻게 식생활의 이단아(異端兒)가 되었는지 사정을 알아본다.

## 유럽에서 쌀 생산하는 이탈리아

쌀은 아시아 몬순지대에서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이상을 생산한다. 쌀재배에 적합한 온도와 강수량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브라질, 그리고 이탈리아 일부에서도 쌀이 재배된다. 그 가운데 이탈리아의 쌀생산은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높고 그 양도 많다. 14~5세기 스페인을 통해 벼농사를 시작한 이탈리아는 북유럽 특유의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다. 여름에는 건조하고 겨울에는 다습하다. 그리고 기온이 높다.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이다. 이탈리아에는 3대 평야가 있다. 캄파냐(campagna)와 람바르디아(lambardia), 그리고 에밀라 로마냐(emila romagna) 평야이다. 이 가운데 쌀이 재배되는 지역은 람바르디아 평야이다. 물론 에밀

라 로마냐에서도 부분적으로 쌀이 재배된다. 그러나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람바르디아는 로마에서 이탈리아 최대 산맥인 아펜니노(appennino) 산맥을 넘어 알프스로 향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람바르디아 지역은 지리적으로 어떠한 곳인가. 앞서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이탈리아는 높은 기온과 풍부한 일조량으로 벼 재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벼 생육기인 여름철 기온은 월평균 30도를 넘는다. 우리 나라의 27~28도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햇볕도 눈이 부실정도로 따갑다. 그러나 물만은 이탈리아 벼농사에 커다란 장애요인이다. 연평균 강우량이 700~800밀리미터로 북유럽보다는 조금 많은 비가 내리지만 강우량이 부족하고 비가 오더라도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많이 내리는 겨울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탈리아 겨울비는 벼 생육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탈리아에서 벼농사를 성립시키기 위한 조건은 무엇보다 물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그러면 이탈리아 사람들은 적은 물을 무엇으로 보충하며 벼농사를 짓게 되는가. 람바르디아 평야를 가로지르는 강이 포(po)강이다. 포강의 물은 수량이 비교적 풍부하고 곳에 따라 흐름도 빠르다. 물색은 회백색 빛을 띤다. 포강을 따라가 보면 물이 부족한 이탈리아에서 왜 쌀농사가 성립하는가 하는 의문이 풀린다. 이곳 사람들은 포강의 물을 관개하여 벼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포강의 물은 어디에서 흘러오는가. 포강의 수원인 알프스 산맥이다. 알프스 만년설이 늦은 봄에 녹아내려 포강의 풍부한 수자원이

된다. 알프스의 만년설은 석회암지대를 지나 흐르기 때문에 물은 회백색이고 수량은 풍부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물이 부족한 이탈리아에서도 부분적으로 벼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역시 이탈리아의 벼농사도 온도, 강수량 등 기후조건과 깊은 관련을 갖고 성립하고 있는 것이다.

### 아시아 육식의 나라 몽골

지금까지 몽골에 대한 인식은 사막국가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몽골의 초원을 대하는 순간부터 몽골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게 된다. 몽골은 해발 1500미터가 넘는 고원지대이다. 위도로 보면 북위 45도에서 50도 사이에 걸쳐 있다. 몽골의 겨울은 냉혹하고 매섭다.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겨울 추위는 무려 7개월이나 계속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영하 50도까지도 내려간다. 한여름에도 영상 20도를 넘지 않는다. 비도 많이 내리지 않는다. 연평균 강우량이 고작 250밀리미터로 우리나라 강우량의 5분의 1정도다. 그래서 몽골의 하늘빛은 항상 파랗고 투명하다. 코발트 빛 그대로이다.

몽골의 국토는 156.6평방킬로미터로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한 면적의 7배가 조금 넘는다. 그러나 전체 국토면적의 70%가 초지다. 그리고 나머지가 사막이다. 농경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넓은 초원 사이를 길고 좁은 개울이 뱀처럼 구불거리며 비교적 빠르게 흐른다. 지대가 높아 물의 흐름이 빠른 듯하다. 물의 근원은 두 줄기다. 하나는 서북쪽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이루는 알타이(altai) 산맥에서 발원한다. 그리고 다른 하

나는 동북쪽 hinggan(hinggan) 산맥에서 발원한다. 그 개울을 따라 몽골인들의 유목생활이 시작된다. 개울물은 가축에게 먹이기도 하고 생활용수로도 이용한다.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개울물의 수량은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다. 5월경부터 9월까지 약간의 비가 내리는데 이 비가 목초를 자라게 하는 최소한의 수분이 되는 것이다. 이 비로 목초들이 자라 양과 말들의 먹이가 되는 것이다. 적은 비가 아시아의 몽골을 육식의 나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 육식민족이 농경민족 무너뜨려

이와같이 추운 기후조건과 부족한 농경지에서도 몽골은 13세기 대제국(大帝國)을 이루었다. 몽골은 8만의 군대로 인류사상 가장 광대한 대륙을 지배했던 민족이다. 칭기스칸의 아들칸은 한때 중앙아시아를 건너 로마의 심장부까지 돌격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어려운 악조건을 이겨내며 대제국을 건설해 낼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식생활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한마디로 육식을 중심으로 하는 식생활의 간편성(簡便性)이 이를 가능케 했던 것이다.

사막과 초원으로 전개되는 몽골인들의 식생활은 다른 나라에 비해 단순하다. 그들은 식생활의 대부분을 양이나 말에 의존한다. 양고기

나 말고기, 그리고 양젖, 말젖이 식생활의 전부이다. 농경지가 부족하고 작물재배에 부적합한 기후조건 때문이다. 따라서 양이나 말은 몽골인들에게 가장 큰 재산이자 생명을 이어주는 젖줄이다.

정복시대 몽골인들은 출정(出征)시 1인당 18마리의 말을 끌고 이동한다고 한다. 말에는 말린 고기가루가 실려 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다. 말린 고기가루가 떨어지면 말의 젖을 먹는다. 그것마저 떨어지면 예비로 끌고 다니는 말을 죽여 군량으로 이용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칼로 말의 정맥을 쳐 0.5리터 정도의 피를 뽑아 마신다고도 한다. 이것이 몽골 군대의 전쟁터에서의 식생활이다.

군량으로서 고기의 잇점은 군량의 이동과 취사에 따르는 편리성이다. 수송병력이나 취사병력이 필요없다. 물을 피울 필요도 없다. 그래서 적에게 노출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쌀을 먹는 민족은 전쟁터마다 수레에 군량미를 옮기고 밥을 짓는 병사가 필요하고, 또 부식을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 연료도 필요하다. 쌀문화는 육식문화에 비해 식생활 자체가 번거로웠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육식을 즐기는 몽골인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다. 이와 같은 식생활 패턴과 습관의 차이가 인류역사를 바꾸어 놓은 것이다. **농약정보**

